

도계 유통 강력 추진

- 법 개정해서 위반하면 5년

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-

생산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시행 주무 부서인 서울시가 금년에 얼마나 강도있게 단속을 할 것인가이다.

그간 간간히 생계상(밀도계)에 대한 단속의 소리가 들려오긴 하였지만 유통에는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있는지 없어졌는지 조차 잊고 있었다.

그러나 9월 1일부터 경기도내의 모든 시(市)가 도계유통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경기도는 밀도계에 대한 철퇴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각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어 생산자들은 또한번 불안하게 되었다.

브로일러의 주 소비지 서울의 형편을 서울시 농축과의 담당관 하종호 가축위생계장을 만나 보았다.

문: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계유통이 시작된지 7년째 되는데 아직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금년도 서울시의 방침은?

강력히 추진할 터

답: 지난해 도봉, 마포 등의 생계상인들이 도계유통 문제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줄 것을

국회에 청원한 바 있었습니다.

이 문제에 대한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회의 결정은 하루빨리 도계유통이 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

또 최근에 관악구에서 시 정책조정 담당관실에 도계유통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역시 강력히 도계유통을 시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.

이와같이 청원이 부결되고 법대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, 정부, 서울시의 방침입니다.

문: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강력한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?

답: 과거와 같은 일정기간 단속기간을 설정하지는 않고 꾸준하고도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.

모든 단속업무를 구청에 이미 이관하였고 구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본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
문: 최근 밀도계가 적발되어 20~30만원씩 벌금을 낸 후에 다시 생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?

답: 현재의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벌칙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



〈서울시 농축과
하중호 가축
위생계장〉

규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

문 : 최근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.

답 : 시나 구청에 계속 고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매달 단속 실적을 본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집계해서 본청은 각 구청에 다시 일러줌으로서 단속이 미진한 구청으로 하여금 분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문 : 축산물가공처리법 이외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있던데……

답 : 닭고기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전문업소에서 팔아야 되지만 전국이 고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보사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. 이번 가금처리협회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보사부에 닭고기도 일반 정육점보다 규모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서 전문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.

문 : 도계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

답 : 양주축협 등 서울근교에 새로운 도계장이 계속 설립되고 있습니다.

축협 직매점을 통해 도계육을 인기리에 공급하고 있으며 축협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도계장에서도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8월중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

기자 : 하루빨리 도계유통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(남 두회)



- 시간당 2,000수 처리 규모의 전자동 1호 플랜트 6월말 도착. 7월 준공
- 시간당 4,000수 처리 규모의 전자동 2호 플랜트 9월말 도착. 10월 준공

MEYI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
과학축산시스템

서울 · 성동구 농동 246-10
☎ (445) 0212